



## “환자가 완치될 때 보람을 느껴요”

사하구보건소 유정숙 간호사

글\_박연숙(본지기자)

보건소 마다 결핵실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관계자나 환자들이 아니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가, 나의 가족이 결핵에 걸리지 않는다면 평생 가볼 일이 없는 곳일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결핵에 걸리면 제일 먼저 찾게되는 곳이 보건소 결핵실이다.

보건소에서 결핵업무를 처음 맡은 간호사들은 결핵예방법이나 결핵관리지침 등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고, 매 환자마다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도 든다. 하지만 한 번 결핵실을 거쳐 간 간호사들은 일회성으로 끝나기 쉬운 다른 업무에 비해 환자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 속에서 일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힘은 들지만 보람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부산 사하구보건소 결핵관리실에 들어서면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미소로 환자를 맞이하는 유정숙 간호사가 있다. 그 역시 결핵업무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 유정숙 간호사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영도구보건소에서 결핵업무를 담당했었고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작년 8월부터 사하구보건소 결핵관리실을 책임지게 되었다고.

민원이 많다는 오전 시간을 비껴 방문했건만, 결핵실 내에는 환자들이 북적였고 잠시 짬이 나길 기다리며 내부를 둘러보았다. 실내 곳곳에는 정성을 들인 듯 가지런하고 종류도 각각인 화분들이 자라고 있었다.

“화분이 참 많네요? 일일이 물 주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라도 보면 환자분들 기분이 좀 좋아지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환자들의 기분상태를 고려해 화분에 물을 주는 그의 마음 씀씀이가 환자들에게 전해진다면, 최소한 한 번 오고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는 없으리라. 그러면 자연히 완치율도 높아질텐데 말이다.

결핵업무는 그에게 있어 어떤 의미일까?

“다른 업무는 결과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핵업무는 지속적으로 환자관리를 하게 되니까 환자분들이 나아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잖아요. 완치되어 나갈 때는 정말 일 하는 보람을 느껴요.”

물론 모든 환자가 완치되어 나가는 것은 아니다.

보건소에서 완치가 안 되고 재발해서 협회나 마산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야 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특히 최근 늘어난 학교내 집단발병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음성 등록된 학생이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종종 목격하는데, 그럴 때 마음이 아프다고.

사하구보건소는 부산 내 보건소 중에서도 특히 결핵홍보가 활성화된 곳이다. 지난 3월 24일 세계결핵의 날에는 사하구 주민들의 결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발견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인근 신평전철역 주변에서 결핵담당자,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이 무쳐 결핵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자원봉사자와 방문보건간호사는 1:1 주민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같은 행사에서도 결핵 홍보 및 결핵에 대한 주민 인식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결핵실태라든지 젊은층에 결핵이 많다는 사실 결핵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결핵관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설문응답자 중 BCG 접종이 결핵예방접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결핵 홍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주었다고.

“처음 결핵으로 보건소를 찾은 환자분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결핵이란 어떤 병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용 동영상 틀어주어 환자가 결핵치료의 기분을 숙지하시도록 하는 거지요. 반응은 긍정적이예요. 결핵이 이런 병이구나 인식하게 되면 훨씬 치료도 쉬워지거든요.”

결핵치료의 기본은 규칙적인 약 복용과 올바른 생활습관임을 환자가 알고 실행한다면 반은 치료한 것이나 다름없다. 누구보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환자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유정숙 간호사다. †



- ① 결핵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는 보건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
- ② 주민들을 대상으로 결핵에 대한 인식도 조사도 실시했다.